

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(15)

아사히보의 링, 컴팩트, OE 방적 솜씨 -

각종 정방기로 다양한 소재 개발

아사히보는 링 정방기, 컴팩트 정방기와 OE 정방기의 세 가지 설비를 갖고 다종다양한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다. 2005년에는 컴팩트 정방기를 한 대 더 증설하고, OE 정방기의 오토코로도 새 기계로 바꾸었다. 새로운 정방기를 도입하지 않고는 새로운 방적 기술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.

장기라고 하는 원면 특화 소재에서는 인도의 수빈 면으로 만든 것을 2005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. 이 외에도 카메룬 면이나 아스페로 면, 오거닉 코튼 등 원면이 갖고 있는 특징을 끌어 낸 소재가 많이 있다.

2003년에 도입한 컴팩트 정방기는 이제야 겨우 안정된 판매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 단계라고 한다. 이토추(伊藤忠) 상사와 레이고쿠(帝國) 섬유가 판매하고 있는 면·마 컴팩트사 “레이센 리네데란”도 아사히보에서 방적을 맡아 생산하고 있다. 앞으로 컴팩트사로도 특색 있는 차별화 소재를 개발할 것이다. ♣